
개성공단기업 최근 경영상황 조사결과

2018. 4

KBIZ 중소기업중앙회

목 차

1 조사 개요

① 조사 배경	1
② 조사 개요	1
③ 조사 내용	1
④ 응답기업 특성	2

2 조사 결과

① 현재 기업 경영상황	3
② 현재 경영상 처한 어려움	4
③ 개성공단 전면중단 이후 대체 생산활동 현황	5
④ 개성공단 재개시점 예상	6
⑤ 개성공단 재개 시 재입주 의향	7
5-1) 재입주 의향이 있는 이유	8
5-2) 재입주 시 애로사항	10
5-3) 재입주 의향이 없는 이유	11

3 조사결과 나타난 특징 및 시사점

① 주요결과 및 시사점	12
--------------------	----

1 조사 개요

1] 조사 배경

- 본 조사는 개성공단이 전면중단 되고 만 2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경영 상황 및 재입주 의향 등을 조사하여 향후 개성공단 재개에 대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
- 2018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 및 남북경제교류 재개 가능성에 대비하고자 함

2] 조사 개요

■ 조사 대상	개성공단 입주기업 124개사
■ 조사 방법	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한 전화조사 및 팩스조사
■ 조사기간	2018. 3. 21 ~ 4. 2
■ 조사기관	네오데이터월드

3] 조사 내용

- 현재 기업 경영상황
- 현재 경영 시 처한 어려움
- 개성공단 전면중단 이후 대체 생산활동 현황
- 개성공단 재개시점 예상
- 개성공단 재개 시 재입주 의향
 - 재입주 의향이 있는 이유 및 경쟁력 우위 요소
 - 재입주 시 애로사항
 - 재입주 의향이 없는 이유

4] 응답기업 특성

○ 본 조사에 참여한 101개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업종별 특성은 다음과 같음

구 분		응답기업수 (개)	비중 (%)
전 체		101	100.0
업종별	가죽가방신발	8	7.9
	기계금속	18	17.8
	섬유봉제	49	48.5
	식품·잡화	6	5.9
	전기전자	11	10.9
	화학·플라스틱	9	8.9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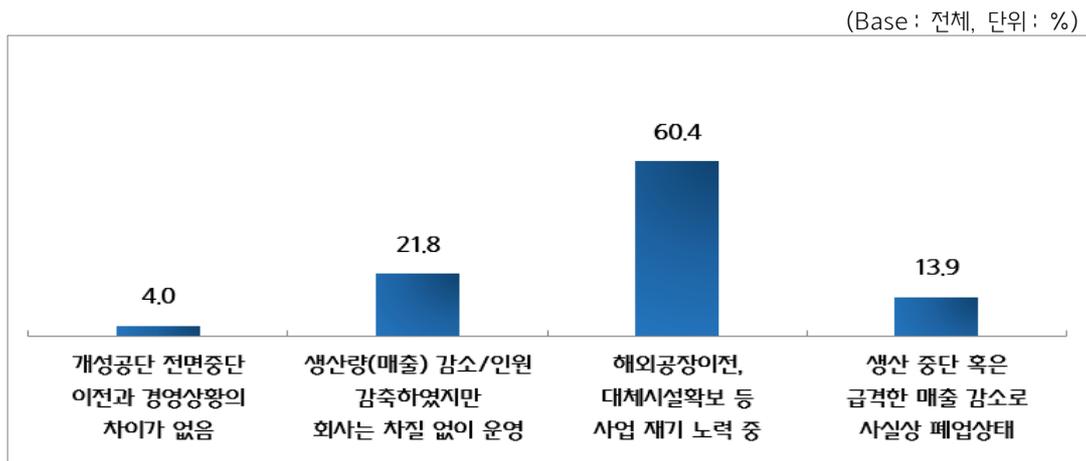
2 조사 결과

Q. 개성공단 전면중단 이후 만 2년이 지났습니다. 귀사의 현재 경영상황은 어떻습니까?

1 현재 기업 경영상황

- 개성공단 전면중단 이후 현재 '해외공장이전, 대체시설확보 등 사업 재기 노력 중'인 기업이 전체의 60.4%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, '생산량(매출) 감소 혹은 인원은 감축하였지만 회사는 차질 없이 운영' 중인 기업 비중은 21.8%로 나타남.
- '생산중단 혹은 급격한 매출감소로 사실상 폐업상태' 라고 응답한 기업도 13.9%에 달하였으며, 기계금속과 섬유봉제 업종에서 해당 기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

<그림 1> 현재 기업 경영상황



<표 1> 현재 기업 경영상황

(Base : 전체, 단위 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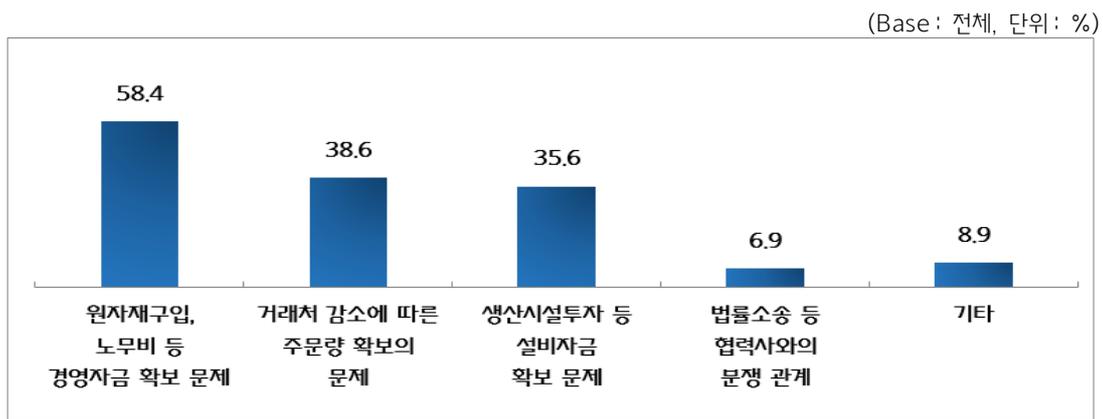
구 분	응답기업수	개성공단 전면중단 이전과 경영상황의 차이가 없음	생산량(매출) 감소 혹은 인원 감축하였지만 회사는 차질 없이 운영 중임	해외공장이전, 대체시설확보 등 사업 재기 노력 중	생산 중단 혹은 급격한 매출 감소로 사실상 폐업상태	
전 체	(101)	4.0	21.8	60.4	13.9	
업종	가죽가방신발	(8)	-	12.5	75.0	12.5
	기계금속	(18)	11.1	33.3	27.8	27.8
	섬유봉제	(49)	2.0	18.4	65.3	14.3
	식품·잡화	(6)	-	16.7	66.7	16.7
	전기전자	(11)	-	27.3	72.7	-
	화학·플라스틱	(9)	11.1	22.2	66.7	-

Q. 현재 귀사가 처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? (복수응답 가능)

2 현재 경영 상 처한 어려움

- 현재 경영상 처한 어려움으로는 ‘원자재 구입, 노무비 등 경영자금 확보 문제’ (58.4%)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, 다음으로 ‘거래처 감소에 따른 주문량 확보의 문제’(38.6%), ‘생산시설투자 등 설비자금 확보 문제’(35.6%), ‘법률소송 등 협력사와의 분쟁 관계’(6.9%) 순으로 나타남
- ‘경영자금 확보 문제’는 모든 업종에서 높게 나타나 개성공단 중단 이후로 어려운 자금사정을 보여주고 있으며, 대체생산으로 ‘해외이전’ 응답이 많았던 전기전자업종에서 설비자금 문제가 큰 것으로 나타남

〈그림 2〉 현재 경영 상 처한 어려움



주1) 복수응답이므로 도합 100% 초과

주2) 기타의견으로 ‘인력 조달 어려움’, ‘인건비 상승’, ‘대출금 이율 및 원리금부담 손실로 인한 은행의 하향 평가’ 등이 있었음

〈표 2〉 현재 경영 상 처한 어려움

(Base: 전체, 단위: %)

구분	응답기업수	원자재구입, 노무비 등 경영자금 확보 문제	거래처 감소에 따른 주문량 확보의 문제	생산시설투자 등 설비자금 확보 문제	법률소송 등 협력사와의 분쟁 관계	기타	
전체	(101)	58.4	38.6	35.6	6.9	8.9	
업종	가죽가방신발	(8)	75.0	75.0	12.5	-	-
	기계금속	(18)	61.1	38.9	33.3	5.6	5.6
	섬유봉제	(49)	51.0	40.8	32.7	10.2	12.2
	식품·잡화	(6)	66.7	33.3	50.0	-	16.7
	전기전자	(11)	63.6	9.1	54.5	-	-
	화학·플라스틱	(9)	66.7	33.3	44.4	11.1	11.1

주) 복수응답이므로 도합 100% 초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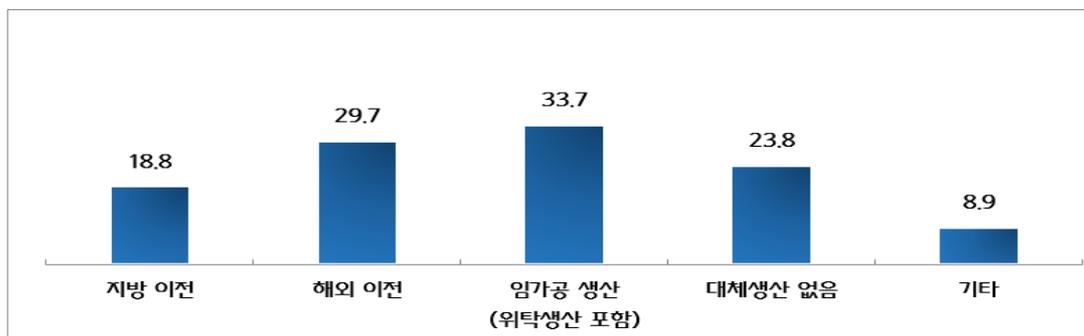
Q. 개성공단 전면중단 이후, 대체 생산활동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?(복수응답 가능)

3] 개성공단 전면중단 이후 대체 생산활동 현황

- 개성공단 전면중단 이후 대체생산활동 형태로는 ‘임가공 생산(위탁생산 포함)’이 33.7%(34개사)로 가장 많았으며, ‘해외이전’ 29.7%(30개사), ‘지방이전’ 18.8%(19개사) 순이었음
- 업종별로 보면, 섬유봉제업이 가장 활발하게 대체생산활동(83.7%)을 하고 있는데, 주로 임가공(위탁생산포함) 생산(40.8%)과 해외이전(36.7%)의 형태였음
 - 가죽가방신발 업종의 경우 응답기업의 절반(50.0%)이 해외이전 하였음
 - 섬유봉제, 식품잡화 업종의 경우 10개사 중 4개사 이상이 ‘임가공(위탁)생산’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응답함
 - ‘사실상 폐업’ 기업이 많았던 기계금속업종에서 ‘대체생산없음’ 응답이 높았음

<그림 3> 개성공단 전면중단 이후 대체 생산활동 현황

(Base: 전체, 단위: %)



주1) 복수응답이므로 도합 100% 초과

주2) 기타의견으로 ‘기존 국내 공장에 신축 운영’, ‘공장설비 자동화 대체’ 등이 있었음

<표 3> 개성공단 중단 이후 대체 생산활동

(Base: 전체, 단위: %)

구 분	응답기업수	지방 이전	해외 이전	임가공 생산 (위탁생산 포함)	대체생산 없음	기타	
전 체	(101)	18.8	29.7	33.7	23.8	8.9	
업종	가죽가방신발	(8)	25.0	50.0	12.5	25.0	-
	기계금속	(18)	16.7	11.1	22.2	38.9	22.2
	섬유봉제	(49)	16.3	36.7	40.8	16.3	8.2
	식품·잡화	(6)	16.7	-	50.0	33.3	-
	전기전자	(11)	18.2	45.5	27.3	27.3	-
	화학·플라스틱	(9)	33.3	11.1	33.3	22.2	11.1

주) 복수응답이므로 도합 100% 초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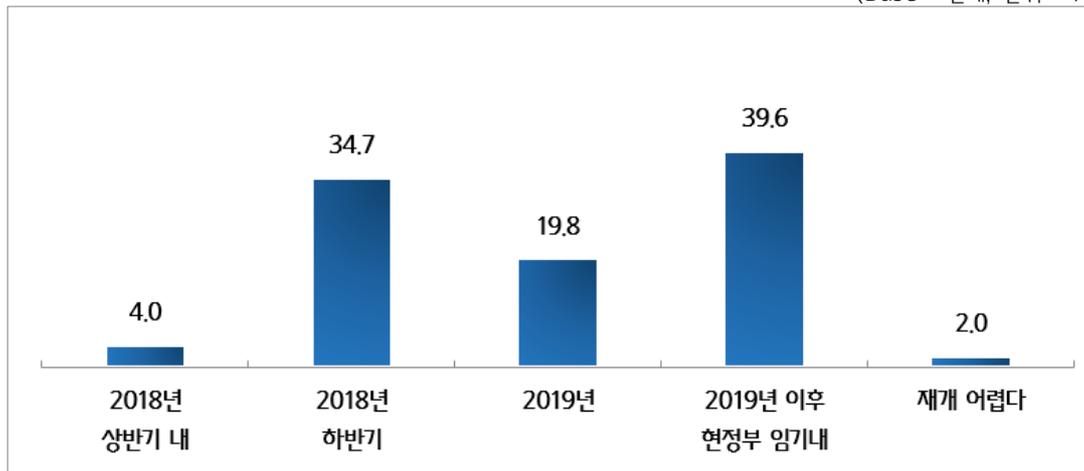
Q. 귀 사는 개성공단 내의 재개시점을 언제로 예상하고 있습니까?

4 개성공단 재개시점 예상

- 개성공단 재개 예상시점으로는 '2019년 이후 현 정부 임기 내'를 꼽은 기업이 39.6%(40개사)로 가장 많았으며, '2018년 하반기'를 예상한 기업도 34.7%(35개사)로 비교적 많았음
- 다음으로, '2019년' 응답이 19.8%, '2018년 상반기 내' 응답이 4.0% 순이었고, '재개가 어렵다'는 응답은 2.0%로 대부분이 재개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
〈그림 4〉 개성공단 재개시점 예상

(Base : 전체, 단위 : %)



〈표 4〉 개성공단 재개시점 예상

(Base : 전체, 단위 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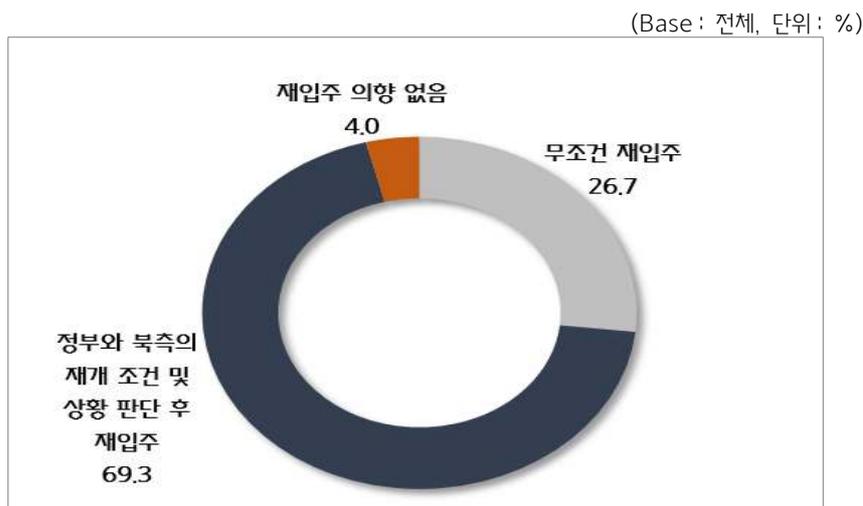
구분	응답기업수	2018년 상반기 내	2018년 하반기	2019년	2019년 이후 현정부 임기내	재개 어렵다	
전체	(101)	4.0	34.7	19.8	39.6	2.0	
업종	가죽가방신발	(8)	-	50.0	-	50.0	-
	기계금속	(18)	-	22.2	22.2	55.6	-
	섬유봉제	(49)	4.1	44.9	24.5	24.5	2.0
	식품·잡화	(6)	-	33.3	33.3	33.3	-
	전기전자	(11)	-	9.1	18.2	63.6	9.1
	화학·플라스틱	(9)	22.2	22.2	-	55.6	-

Q. 개성공단 재개됐을 시, 재입주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?

5] 개성공단 재개 시 재입주 의향

- 개성공단 재개 시 재입주 의향을 질문한 결과 ‘정부와 북측의 재개조건 및 상황 판단 후 재입주’ 의향이 69.3%로 가장 많았으며, ‘무조건 재입주’ 의향도 26.7%를 차지하는 등 응답기업의 96%가 재입주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남
- 식품·잡화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‘조건부 재입주’가 높게 나타났음.
 - 전기전자 업종은 ‘무조건 재입주’ 응답은 없고 ‘재입주 의향 없음’ 응답은 높게 나와 개성공단의 불안정한 사업환경에 대한 피로감이 컸던 업종으로 보임

<그림 5> 개성공단 재개 시 재입주 의향



<표 5> 개성공단 재개 시 재입주 의향

(Base: 전체, 단위: %)

구 분	응답기업수	무조건 재입주	정부와 북측의 재개 조건 및 상황 판단 후 재입주	재입주 의향 없음	
전 체	(101)	26.7	69.3	4.0	
업종	가죽가방신발	(8)	25.0	62.5	12.5
	기계금속	(18)	22.2	72.2	5.6
	섬유봉제	(49)	34.7	65.3	-
	식품·잡화	(6)	50.0	50.0	-
	전기전자	(11)	-	81.8	18.2
	화학·플라스틱	(9)	11.1	88.9	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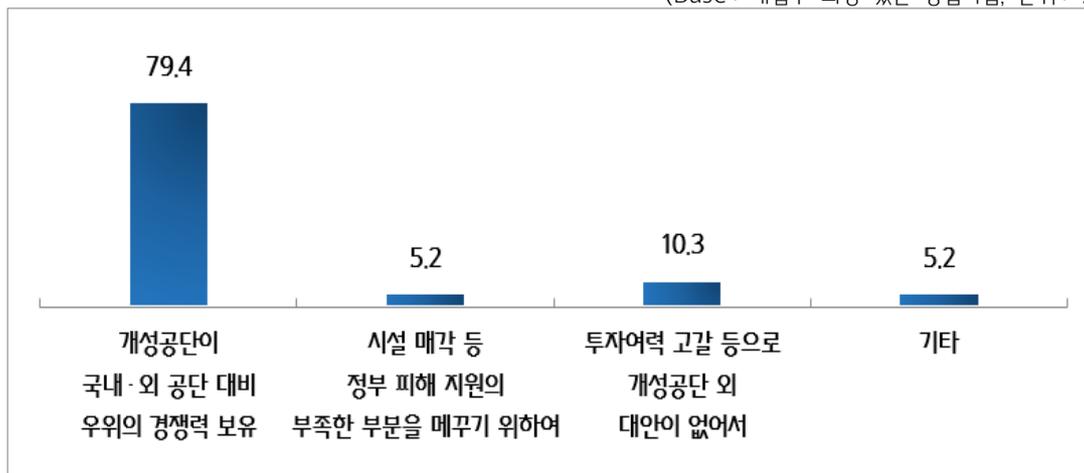
Q. 재입주 의향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?

5-1) 재입주 의향이 있는 이유

- 개성공단 재개 시 재입주 의향이 있는 97개사 중 77개사(79.4%)가 ‘개성공단이 국내·외 공단 대비 우위의 경쟁력 보유’를 이유로 들었으며, 이 밖에 ‘투자여력 고갈 등으로 개성공단 외 대안이 없어서’(10.3%), ‘시설 매각 등 정부 피해 지원의 부족한 부분을 메꾸기 위해’(5.2%) 순으로 나타남
- 특히, ‘사실상 폐업’ 비중이 높은 기계금속 업종에서 ‘시설매각 등 피해지원 부족부분을 메꾸기 위해서’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

〈그림 6〉 재입주 의향 이유

(Base: 재입주 의향 있는 응답기업, 단위: %)



주) 기타의견으로 ‘이미 투자를 많이 해서’, ‘시설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’ 등이 있었음

〈표 6〉 재입주 의향 이유

(Base: 재입주 의향 있는 응답기업, 단위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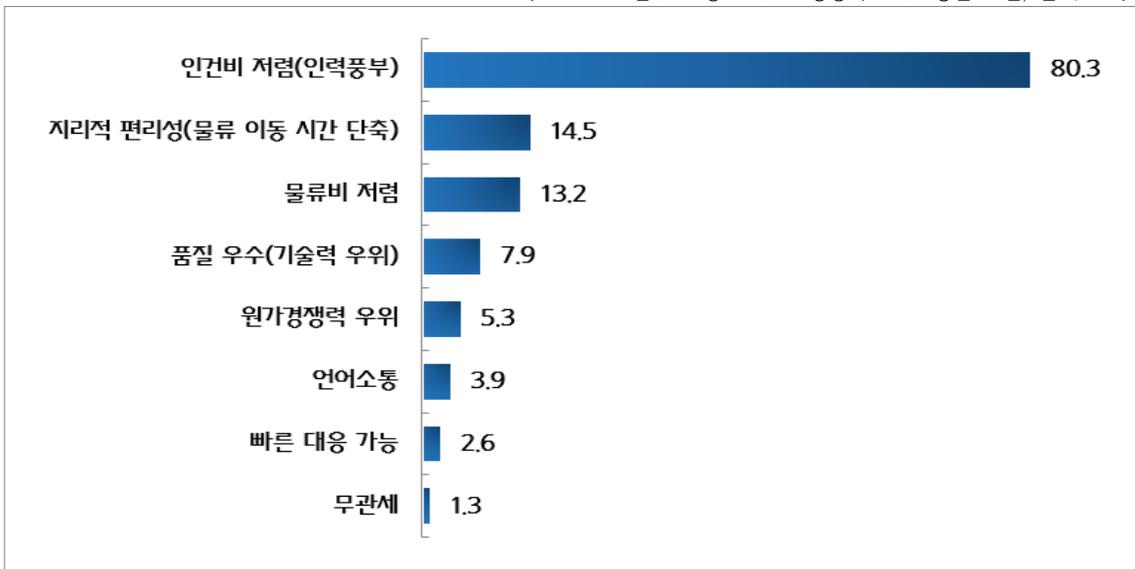
구분	응답 기업수	개성공단이 국내·외 공단 대비 우위의 경쟁력 보유	시설 매각 등 정부 피해 지원의 부족한 부분을 메꾸기 위해	투자여력 고갈 등으로 개성공단 외 대안이 없어서	기타	
전체	(97)	79.4	5.2	10.3	5.2	
업종	가죽가방신발	(7)	85.7	-	-	14.3
	기계금속	(17)	70.6	17.6	11.8	-
	섬유봉제	(49)	81.6	4.1	14.3	-
	식품·잡화	(6)	66.7	-	16.7	16.7
	전기전자	(9)	88.9	-	-	11.1
	화학·플라스틱	(9)	77.8	-	-	22.2

5-1-1) 개성공단의 국내외 공단 대비 경쟁력 우위 요소

- 개성공단에 국내·외 공단 대비 경쟁력이 있어 재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의 대다수는 ‘인건비 저렴(인력 풍부)’(80.3%)을 결정적인 경쟁력 우위 요소로 꼽았음
- 이외에, ‘지리적 편리성’(14.5%), ‘물류비 저렴’(13.2%), ‘품질 우수’(7.9%) 순으로 나타남

〈그림 7〉 개성공단의 국내외 공단 대비 경쟁력 우위 요소

(Base : 재입주 희망 이유로 ‘경쟁력 보유’ 응답 기업, 단위 : %)



주) 복수응답이므로 도합 100% 초과

〈표 7〉 경쟁력 우위 요소

(Base : 재입주 희망 이유로 ‘경쟁력 보유’ 응답 기업, 단위 : %)

구 분	응답 기업수	인건비 저렴 (인력 풍부)	지리적 편리성 (물류 이동 시간 단축)	물류비 저렴	품질 우수 (기술력 우위)	원가 경쟁력 우위	언어소통	빠른 대응 가능	무관세
전 체	(76)	80.3	14.5	13.2	7.9	5.3	3.9	2.6	1.3
업종	가죽가방신발	(6)	50.0	33.3	-	16.7	-	-	-
	기계금속	(12)	100.0	-	-	-	-	-	-
	섬유봉제	(40)	77.5	20.0	17.5	7.5	7.5	5.0	2.5
	식품,잡화	(4)	100.0	-	25.0	-	25.0	-	-
	전기전자	(7)	71.4	14.3	-	14.3	-	-	14.3
	화학,플라스틱	(7)	85.7	-	28.6	14.3	-	14.3	-

주) 복수응답이므로 도합 100% 초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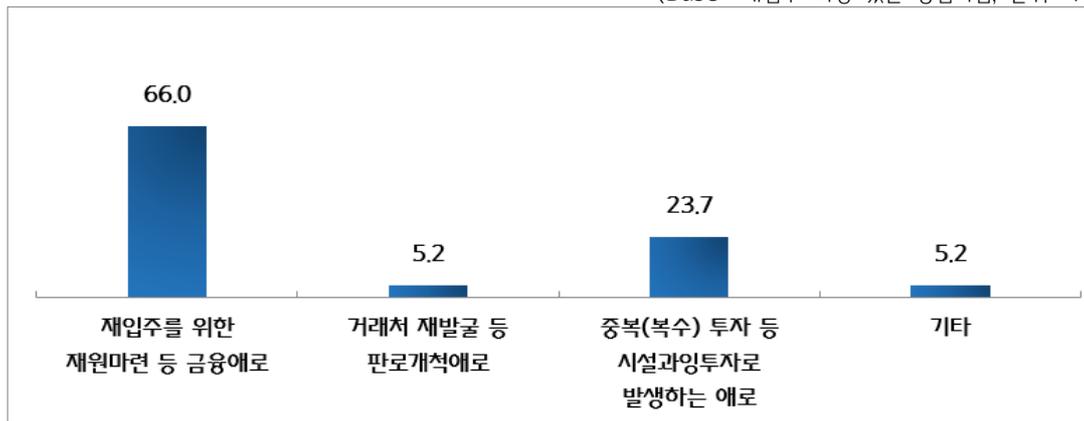
Q. 재입주시, 귀 사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?

5-2) 재입주 시 애로사항

- 개성공단 재입주 시 애로사항으로는 '재입주를 위한 자원마련 등 금융애로'가 66.0%로 가장 높았음.
- 이외에 '중복(복수) 투자 등 시설과잉투자로 발생하는 애로' 응답이 23.7%, '거래처 재발굴 등 판로개척애로' 5.2% 등이 있었음
- 특히, '금융애로'는 식품·잡화(83.3%), 섬유봉제(75.5%) 업종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, 화학·플라스틱 업종은 '중복투자 애로'가 상대적으로 높게(55.6%) 나타남

〈그림 8〉 재입주 시 애로사항

(Base : 재입주 의향 있는 응답기업, 단위 : %)



주) 기타의견으로 '정치적 불안정', '공단 내 노동력 확보 관련 애로' 등이 있었음

〈표 8〉 재입주 시 애로사항

(Base : 재입주 의향 있는 응답기업, 단위 : %)

구 분	응답기업수	재입주를 위한 자원마련 등 금융애로	거래처 재발굴 등 판로개척애로	중복(복수) 투자 등 시설과잉투자로 발생하는 애로	기타	
전 체	(97)	66.0	5.2	23.7	5.2	
업종	가죽가방신발	(7)	57.1	-	42.9	-
	기계금속	(17)	58.8	11.8	29.4	-
	섬유봉제	(49)	75.5	6.1	10.2	8.2
	식품·잡화	(6)	83.3	-	16.7	-
	전기전자	(9)	55.6	-	44.4	-
	화학·플라스틱	(9)	33.3	-	55.6	11.1

Q. 재입주 의향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?

5-3) 재입주 의향이 없는 이유

- 재입주를 희망하지 않는 기업(4개사) 중 3개 기업은 ‘언제든지 다시 닫힐 수도 있는 경영환경의 불안정성’을 들었으며, 1개 기업은 ‘재입주시 가중되는 기업 부담’을 입주 의향이 없는 이유로 답하였음

〈표 9〉 재입주 의향이 없는 이유

(Base: 재입주 의향 없는 응답기업, 단위: %)

구 분	응답기업수	언제든지 다시 닫힐 수도 있는 경영환경의 불안정성	재입주시 가중되는 기업 부담 (자금, 인력수급 등)
전 체	(4)	75.0	25.0

3 시사점

① 개성공단 재개 시 입주기업의 96.0%가 재입주 의향 있으며, 98%가 現 정부 임기 내 재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

- 개성공단 재입주 이유로 ‘개성공단이 국내외 공단 대비 우위의 경쟁력(79.4%)’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
 - 경쟁우위 요소로는 80.3%(61개사)가 ‘인건비 저렴(인력풍부)’을 꼽았는데, 입주기업의 60%가 노동집약적 업종(섬유봉제, 가죽, 가방, 신발)인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
 - 그밖에, 서울과 1시간 30분 거리인 ‘지리적 편리성’(14.5%), ‘저렴한 물류비’(13.2%), ‘언어 소통’(3.9%) 등을 경쟁우위 요소로 꼽았음
- 입주기업들은 現 정부 임기 내 ‘개성공단 재가동이 가능할 것’으로 보고 있으며(98%), 그 중 54.5%는 2019년 내(現 정부 상반기)에 재가동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바, 남북정상회담(4월)과 북미정상회담(6월) 등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임

②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경영정상화 및 개성공단 재입주 시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

- 개성공단 가동중단 이후 ‘해외공장 이전, 대체시설확보 등 사업재기를 위해 노력(60.4%)’하고 있지만, 대부분의 기업이 경영상황이 악화(96%, 97개사)된 것으로 보여, 정부의 1:1 지원, 맞춤형 지원 등 추가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
 - 현재, 사업 운영상 어려움으로 ‘자금난(경영자금, 설비자금)’을 꼽은 기업이 62.3%(63개사)로 가장 많았으며, ‘사실상 폐업’이라고 응답한 기업도 13.9%로 나타남
- 대체생산으로 ‘해외이전 기업(29.7%)’이 ‘지방이전 기업(18.8%)’보다 높은 것은 주목할 점으로, 기업의 국내 잔류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‘국내 대체생산부지 입주 지원’에 대한 정부의 지원 내용을 보강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줌
- 재입주 시 애로사항을 묻는 질문에 ‘재입주를 위한 재원마련(66.0%)’을 꼽아, 재입주시 반납해야 할 경험보험금, 시설유지보수비용 등 재원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, 안정적인 재입주를 위한 금융지원정책 마련이 필요

-
- 특히, 개성공단 의존도가 70% 초과인 기업(72개사, 의존도 100%인 기업 49개사 포함)은 향후 개성공단 재개 시 경험보험금 반환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어 추가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
 - 개성공단기업협회의 전년도 조사결과(2017. 6월 조사, 100개사 응답)와 비교했을 때, '재입주 의향'은 2%p 상승(94.0% → 96.0%)하여 재입주 의사는 높아졌음
 - '무조건 재입주' 비율은 9.3%p 하락(26.7%)하였고, '조건부 재입주'는 11.3%p 상승(69.3%)한 것으로 나타나, 재입주를 유도하기 위한 법적·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